

한반도 '시계제로'... 남북관계 첫 발도 못 떤다

차당선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험대에

국제사회와 공조뿐 대북 강공 불가피 관계개선 시도 등 '화해' 의지 보여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12일 결국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향후 정세는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로'의 형국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 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전제라고 할 '비핵화'가 박근혜 정권 출범도 전에 어긋나면서 대북 정책의 틀을 조정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됐다.

또한, 핵실험을 하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 이에 맞선 북한의 후속 도발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당선인은 자신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이날 당선인 비서실에서 소집한 긴급 북핵 회동 직후 조운선 대변인을 통해 한 브리핑에서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장선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회의 직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지는 않겠지"라고 말한 것도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긴장의 급격한 수위 고조 후 극적으로 대화의 물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공'만으로 지금의 '대북 경색'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고, 박근혜 표 외교안보정책은 채 펼쳐보일 수도 없는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 김 주한미대사를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공조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라는 '채찍'과 별도로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 의지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지난 두 달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밀 접촉을 하든, 특사를 보내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 이후 대화공세로 돌아설 수 있고 2기 오바마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여기에 호응할 경우 한미의 대북정책도 이에 맞게 재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2기 오바마 정부의 경우 외교안보팀이 '대화'로 짜인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과거 김정일은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꼭 관계개선을 하고 싶어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우리가 제재를 강하게 하더라도 추후 대화를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강경 기조로 바뀌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북핵 초당적 대처" 재확인

외통위, 규탄 결의안 논의

북한의 3차 핵 실험 강행과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초당적 대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핵 실험과 관련 "심각한 유감"이라며 "북한은 추가 제재와 국제사회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 대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이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요 동북아 평화반영에 심대한 위협 및 관행"이라고 규정짓고 현 정부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 가동하면서 한반도 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도발도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체제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 핵 실험과 관련,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 채택'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긴급 비상대책위

원회에서 "이번 핵 도발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 피 땀 흘려 만든 남북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의 3차 핵 실험 강행과 관련 '북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내일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북핵 규탄 결의안'을 제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 미·중·러에 하루전 통보사실 확인

북한은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 여유를 두고 하루 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을 할 때 20분 전에야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이런 사실을 한국과 미국에 전달했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 때도 중국에는 29분 전, 미국에는 24분 전에 각각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북한이 어제(11일)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미

국은 우리에게 이를 바로 알려 오후 10시에 알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저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제 통보가 있었던 이후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오전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긴급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전날 저녁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광주시교육감 선거 열기

윤봉근·정희곤·박인화·박표진 출마 준비

내년에 실시될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벌써 후끈거리고 있다.

현 장휘국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교육위원들이 잇따라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광주시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거 출마로 결심을 굳히고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심사숙고 끝에 내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출신인 정희곤 광주시의원(교육위원)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시의회 안팎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또한 교육감 출마를 놓고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 전교조 출신으로는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박표진 광주시 부교육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초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광주시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교육감은 최근 명예퇴직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교육감 출마에 대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초·중·고교 일부 교장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교육감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경제권력' 수장들도 바뀌나

금융위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후임 주목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3대 경제권력기관의 수장이 교체될지 주목된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그 대상이다.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장의 인선은 조각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석동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임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 청장과 김동수 위원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금융위원장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대구), 임종룡 국부총리

실장(전남), 신재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서울),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대구),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서울) 등이 거론된다.

국세청장 후보로는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경남),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대구), 박윤준 국세청 차장(서울),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대전),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부산)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신임 공정위원장은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경북)의 승진이나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서울)의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분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출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급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투자 하실 분

- ▶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 ▶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 ▶ 자금 : 5천만원 이상
- ▶ 기간 : 1년정도
- ▶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 ▶ 분야 : NPL과 특수물건
- ▶ 시간 : 주1회, 2시간
- ▶ 3개월 과정
- ▶ 수강료 : 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임정비등 일체)

(주)오현경매 H.010-4667-9300